

중동발 에너지 불안... 경제계, 절약 캠페인 확산

경중·대한상의, 대중교통·차량 5부제 등 대응 나서 기업·근로자 등 참여 유도... '생활형 절전' 체계 구축

중동발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절약 캠페인에 나서며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 생산 차질과 국민 생활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율 절약'이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국 경제단체들

은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전방위 확산하고 있다. 단순 권고를 넘어 출퇴근 방식부터 사무실 운영까지 전 영역에서 '생활형 절전'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경중은 전국 15개 지방경총과 4800여 회원기업 노사에 공문을 보내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을 요청했다.

이올러 사무실 냉난방 과다 사용을 줄이고, 업무 종료 후 조명 및 사무기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절전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LED 조명 등 고효율 기자재 활용과 일회용품 사용 절제까지 포함해 에너지 절약을 '경영 전반의 실천 과제'로 확장했다.

또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상의 역시 전국 74개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정부의 절약 기조에 맞춰 차량 5부제를 도입하고, 이를 전국 회원기업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주 1회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를 업무용 차량과 출퇴근 차량에 적용하고, 장애인 차량이나 친환경차 등은 예외로 두는 등 현실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제 적정온도 유지(난방 20도·냉방 26도), 대기전력 차단, 점심시간 소등, 비대면 회의 확대 등 세부 실천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대한상의는 전국 20만 회원기업으로 절약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한 6가지 실천' 캠페인을 시작했다. 출퇴근 시 대중교

통 이용 권장, 화상회의 활용 확대, 사무실 내 자원·에너지 절약 노력 등을 추진한다.

경제계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생산 안정'과 직결된 대응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에도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 국민이 동시에 움직이는 절약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시청 차량 출입구에 승용차 5부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2026년 스프링 세일 시작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7일부터 4월 5일까지 봄 시즌 쇼핑 행사인 '스프링 세일(SPRING SALE)'을 진행한다. 이번 정기세일에는 '브랜드별 할인 혜택', '대형 상품 행사', '고메워크', '와인워크', '웨딩패어' 등 다채로운 행사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의류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상품을 고르는 모습. 연합뉴스

자금 막힌 중소기업, 공제기금으로 몰린다

대출 2520억 10% ↑... 고유가·내수부진 속 안전망 부상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 확대로 자금 검색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공제기금이 '버팀목 금융' 역할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지원액은 25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 역시 늘어나 제적 가입자는 약 1만7800개로 확대됐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

등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공제기금이 사실상 '대체 금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용 대출 공제 제도로, 기업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신용대출 형태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운영자금대출 등은 평균 5.6% 수준 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경우 최저 3.6%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중기중앙회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제기금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 간 상부상조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망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전, 전력설비 위치정보 정밀·고도화

국토정보공사와 협약... 배전망 관리 효율 개선 등 기대

한국전력공사가 국토 공간정보를 접목한 설비 관리 고도화에 나선다.

2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력설비 위치정보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지호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과 이주하 LX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LX가 보유한 정밀 측량 기술과 지적·공간정보를 활용해 전력설비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됐

다. 한전은 이를 바탕으로 설비 설치부터 운영·유지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특히 'LX 맵' 등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배전용지 관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위치정보 관리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교육 협력도 확대한다. 전력 데이터와 국토 정보를 결합한 신규 사업 발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설비 위치정보의 정밀도가 향상될 경우 고장 대응 시간 단축과 유지



보수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운영 효율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호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국토정보와 전력 데이터를 연계한 협력을 통해 설비 관리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이마트, 두 줄 김밥 '3980원' 저렴한 값·높은 상품성 보유

이마트가 고물가 속 외식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값 수준의 김밥을 선보인 다.

이마트는 26일 '반값가격 3980 두줄김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마트가 출시한 두줄김밥의 가격은 3980원으로 시장에서 김밥을 보통 한 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가격은 3800원이다.

이마트는 저렴한 가격도 외식을 대신할 만큼 높은 상품성을 위해 두 가지 김밥으로 구성했다. 두 가지 김밥은 '매콤 어묵 김밥'과 '원조김밥'이다. 아삭한 식감이 풍미를 깔끔하게 살리고, 단무지와 당근채를 활용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맛이 특징이다.

이 같은 이마트의 반값 김밥 출시는 고물가 속에 외식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식물가지수는 124.72로 불과 3년 전인 2022년 110.71에 비해 12.7% 가량 상승했다.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국민 간편식 김밥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115.98에서 138.26으로 3년 만에 19.2% 올랐다. 대형마트에서의 가성비 조식 조리상품은 큰 인기를 얻고, 주요 품목 매출도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마트는 반값 김밥 외에도 다양한 먹거리 행사를 진행한다.

윤용성 기자 yu1404@gwangnam.co.kr

*** 제10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제22회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기념 시·도민 영산강 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행운권 추첨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절차에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연국 T. (062) 370-7090

※ 후원 시연으로 진행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드리투데이** (사)광남문화재단 **건락인**

후원(예정): **나주시청** **전남도체육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